

## □ 독립영화제를 통해 본 우리의 인권과 독립

표현의 자유는 이데올로기나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일구었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표현의 자유 및 인권영역에 대한

우리모두의 보호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난 13일 폐막된 제2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 중 '달은 어디에 떠있는가'



# 편견으로 덮힌 영화제의 베일, 우리의 인권도 봉인되고 있다

정민아

(무브 아이 회원)

'미래의 중심과 현실의 돌파구'와 과거의 접점을 발견하는 영화 축제란 모토를 내걸었던 제2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Siiff '98)가 3월 13일 폐막되었다. 매일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어서 일본 내에서도 한때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최양일 감독의 '달은 어디에 떠있는가'를 시작으로 일본영화에 대한 한국관객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사가 여러 영화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과는 별도로, 우리의 독립영화에 대한 의미의 퇴색이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번 영화제가 다시금 정립돼야 할 것이다.

독립영화라함은 대개 자본으로부터 창작주체가 자유롭기 때문에(예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금을 누가 소유하는가가 문제이다), 대부분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되어 다양하게 자기 목소

리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와 차별화되는 많은 독립영화들이 선댄스 영화제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상체험을 느끼게 해주고, 일본 역시 메이저 스튜디오와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들이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뉴웨이브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영세한 자본규모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독립영화들이 주로 단편이나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탐미적인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배용건 감독도 있으나, 대부분은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데 있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화들로 나타난다. 대신 이들은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데에 걸맞게 영화 내적으로 비판의식과 실험성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 비판의 목소리 반영

무엇보다도 이들 독립영화의 미덕은 주류상업영화들이 해내지 못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

이다. 푸른 영상 김동원 감독의 '봉천동 사람들', 박기복 감독의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음),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1, 2', 클레몽-페랑 영화제 최우수 창작상이라는 성과로 역으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김진한 감독의 '햇빛 자르는 아이' 등은 사회주변인들의 생생한 현실 및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품과 경쟁에 맞물려 있는 주류 영화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다양성과 의의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상업영화 일반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실로서 소수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올해의 많은 단편영화들이 비관정신뿐만 아니라 형식미에서도 신선한 문법을 시도하고 있다. 소녀의 심리를 빚을 통하여 잘 표현해낸 '햇빛 자르는 아이', 흑백과 컬러 화면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10대들의 상실감을 시각화한 '열일곱', 현실과 허구의 경계·강박관념과 상상의 표현이 진실되게 드러난 '기억촬영',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

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축하는 색상의 사용이 뛰어난 '간과 감자', 독립영화다운 무제한의 상상력이 있고 기술과 자본을 배려한 독창적인 카메라 배치가 두드러진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등은 우리의 독립영화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준다. 다양한 현실과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구조적인 배려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상품이라는 인식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해줄 대안적 문화 프로그램이므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지금 우리의 현실

'낮은 목소리' 등을 제외하면 우리 관객들은 주로 이런 영화들을 특정 영화제나 대학 캠퍼스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년 6월 인도포럼과 9월 인권영화제, 쿼터영화제가 나란히 무산되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봉쇄당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영화의 상업 전심 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연법 조항을 이용하여 극장 쪽에 압력을 행사해 영화제를 무산시켰다.

극장상영이 아닌데도 소행, 단편영화까지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중대한 권리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검찰은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면서 인권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뀐 현재 그는 석방되었지만, '레드헌트'의 이적성 규정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조성봉 감독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 있어 해외영화제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50년 전의 역사를 현실에서 이야기하며 잘못된 역사와 사회사·부패구조에 대해 말하려는 감독의 의도는 50년이 넘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탓에 걸려 대중과의 접촉을 원천봉쇄 당했다.

표현의 자유란 이데올로기나 가

치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채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 앞으로의 지향점

IMF 구제금융 시대로 인해 국민들이 회생을 요구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것이고, 인권의식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삭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동안의 거품과 상품화 경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문화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더더욱 꾀할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허한 이벤트적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전문성을 육성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일구었고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제 표현의 자유 및 인권영역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캠퍼스에서 뿐만 아니라, 극장과 TV를 통해 그 영화들을 만나고 싶다.

## 문화단신

### 경희사진 연구회 신인전

서울캠퍼스 동아리 Kyung Hee Photo Shop의 제16회 경희사진연구회 신인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13명의 97학번 학생들이 지난 한 해 쌓아온 기량을 사진 속에 담아 전시하는 것으로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는 체대 앞 진입로이며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이다.

### 극단 길라잡이의 연장공연

임진택이 연출을 맡은 극단 길라잡이의 이번 공연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홍세화라는 한 프랑스 망명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사회모습들을 사실성있게 담아내고자 했다. 공연장소는 삼성동 아리랑 소극장이며 기간은 18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 월요일은 공연이 없으며 평일에는 저녁 7시 30분, 토·일·공휴일에는 4시와 7시에 공연이 시작된다. 공연문의는 741-6065이다.



### 영화 '하드맨' 28일 개봉

영화 '하드맨(HARD MEN)'이 오는 28일부터 명보, 허리우드 등의 극장에서 개봉된다.

주인공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봄으로써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철학적인 명제를 피로 열락진 배경 속에 따뜻하고 코믹한 에피소드로 절묘하게 엮어내 보이고 있다.

## □ 인터뷰 — 제2회 국제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재형씨



## 작가정신이 살아있는 독립영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영화에서 작가정신이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독립영화. 그래서 영화인들은 독립영화를 '영화의 미래'라고 말한다. 관객들의 큰 호응속에 막을 내린 제 2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Siiff '98)에서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이해하고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독립영화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번 'Siiff '98'을 준비한 집행위원장 정재형(동국대 연극영상과 교수) 씨를 만나보았다.

### 제 1회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 1회때는 아시아와 제3세계권의 영화를 주로 소개하는 특별상영작 부문에 키아로스타미 등 이란대표 감독들의 작품을 초대했고, 올해에는 일본 뉴웨이브 영화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뮤직&시네마' 등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 독립영화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다면

제작·배급·상영의 3단계 영화제작체계를 수직통합하는 거대 메이저 시스템과 달리, 영화제작은 인디펜던트가, 배급·상영은 메이저배급사가 담당하는 것이 독립영화활동이다.

상업적 독립영화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흥행성을 의식하고 오락성을 철저히 지향한다. 일반상업영화와 구분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중들의 범위이다.

한편 비상업적 범주의 독립영화는 다큐멘터리, 단편 극·실험 영화 등이 속한다. 이들 영화는 문화 운동적, 예술 고답적이며 기존영화의 현실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그 모순된 현실을 바꿔 보려는 '대안적'

영화 활동이다. 대안 개념에서의 독립영화는 정부의 자금,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 형식으로 자본이 마련되어 비상업극장중심의 유통경로를 택한다.

###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번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대략 2억원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에서 지원해 준 2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외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입장권 판매수익, 스태프들의 자원봉사, 극장측의 대관료 배려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어렵다.

###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개념의 독립영화에

대한 두가지 정의가 서로 혼재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두 개념의 독립영화가 판이하게 다른 목적의식과 유통경로를 취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념이 확연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더러 각자가 서로 자기 식으로 독립영화를 정의하면서 상대 영화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궁극적인 영화발전이란 두 개념의 독립영화가 각각 풍성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가 독립영화의 개념을 정확히 알리고, 영화장르간 다양한 교류의 교량으로, 신선한 인력개발의 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류지은 기자)

천리안

GO: http://www.chollian.net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가깝게 - 천리안 98 탄생!

"생방송 속의 뉴미디어 천리안은 21세기 정보사회를 모든 네티즌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리적 요금, 30시간에 무제한 채팅 프리!

● 최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 이중중심의 통신 환경  
- 프로그램 오동작 최소화  
- 최고의 안정성 확보  
- 개인 통신을 위한 해도 및 1:1 대화 기능 강화  
- 인터넷에서도 접속 가능한 통신환경 보장

● 클릭 한번으로 자유로이  
- 원하는 PC통신과 인터넷  
- 웹 브라우저 자체 내장!  
- 천리안98이 웹 브라우저  
- 클릭 한번만으로 WWW 서비스 이용 가능  
- 설치 고인 끝!  
- 전화 접속 네트워크 자동 설치

●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진 사용환경  
- 깔끔하고 시원한 비주얼의 메뉴 화면  
- 윈도우95 및 브라우저의 우측 마우스 기능 대폭 채용  
- 인터넷을 사랑하는 모든 네티즌의 감성 향상

● 진정한 멀티미디어 세계  
-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동영상과 사운드  
- 역동적이고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 실제 대화하는 듯한 온라인 채팅

천리안98 탄생 대잔치!

전세  
- 노트북과 HP레이저젯을 접할 수 있는 빅 찬스~  
● 천리안98 탄생 기념하는 행운의 윈즈 대잔치에 지금 go EVENT 하세요

전세2  
- 천리안98 CD를 무료로~  
● 천리안98 CD(윈즈95이전 4.03 포함)를 무료로 드립니다. (회원 go EVENT, 비회원 Guest접속 및 인터넷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리안 go EVENT를 참고하세요.

우리들만의 작은 만남 - 넷마당!

- 넷마당(SCUG: Small Closed User Group)  
- 이제 동아리, 학과모임, 동문회(동창회)는 천리안에서 모이세요.  
- 10인 이상만 모이면 천리안의 여러 네티즌의 작은방인 넷마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 3.4월 개설시 다양한 선물 제공 (넷마당 개설비 면제, 마우스패드, 천리안 시계등)  
● 개설문의: (02)220-7063~6

천리안 대표홍선 — 천리안

천리안 고객센터: 080-99-01420, (02)709-3700

■ 천리안 접속번호: 01421 ■ 가입신청: 상기 전화번호나 전국 대도시 지정점에 전화로 즉시 가입 가능